

# 1968년 창립 ... 1천여 회원 농업발전 공헌 한국토양비료학회

금세기에 인류가 해결해야 할 주요 당면과제는 식량과 환경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까지 농산물 증산기술을 통하여 증가된 인구를 부양해 왔으나 앞으로는 증산여건이 불리해지고 더욱이 화학비료·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환경농업이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어 인간의 의도대로 식량생산이 과거와 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고작 30% 내외로 국제시장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산업화·도시화의 가속화로 양산된 각종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토양의 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 생산기반 뿐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써 토양과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 농자재인 비료분야의 기초·응용 연구와 이에 따른 기술 보급을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토양비료학회는 '보리고개'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1968년 창립되어 이제 성년기로 접어들었다. 창립 직후부터 어려운 국내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양특성 파악과 이에 맞는 비료를 적정하게 시비하는 것임을 학회의 공식입장으로

견지하고 비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시와 업계의 고충처리를 도맡아 오늘의 비료산업계 발전의 견인차 소임을 다하였다. 비료는 내수를 충족하고도 세계 유수의 비료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료 산업의 발전과 함께 60년대부터 토양조사와 토양비옥도 검정사업을 실시하여 문제 토양을 개량하고 적정시비를 통하여 주곡인 쌀의 자급 달성을 이루는데 있어 학회가 지대하게 공헌하였다.

## 국제 심포지엄 두차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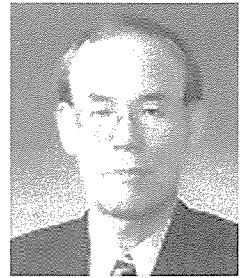
우리 학회는 토양·비료·식물영양·폐자원 이용 등 농업과학의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에 본부를 두고 있고 과기원의 연구원이 우리 학회의 역대 임원·간사에 다수 참여하여 토양비료 전문가로서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식견이 학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어 우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 결정에 용이하게 반영되므로써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학회 회원은 1천여명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농업인, 농업연구지도직, 비료산업계·농업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농업생산 분야에 직접 참

여하고 있다.

학술행사로써는 봄, 가을에 개최되는 학술발표회가 있고, 이때 외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을 초청, 강연을 듣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한번 꼴로 토양·비료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국내 또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제까지 가장 뜻깊은 학술회의는 1988년과 1996년 두차례의 국제 심포지엄으로 주제는 유허비료가 한국 농업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유허이 함유된 비료, 특히 유안 같은 비중은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는 이론에 눌러 속효성 질소비료로서 질소성분 외에 필수 다량원소인 유허이 들어있어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비료라는 이점이 가려져 왔다. 2회에 걸친 심포지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토양 산성화는 유허이 부수적으로 함유된 비료 사용에 기인되기 보다는 기후·모암에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음이 밝혀져 왜곡된 기존의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학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논문의 국내외 발표를 권장하기 위하여 학술상제도를 실시, 매년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게 상패

한국토양비료학회는 '보리고개'의 약명이 채 가지지 않았던  
1968년에 창립되어 토양개량과 적정시비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업인, 농업연구지도직, 대학교수 등 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학회는 매년 두차례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1988년과 1996년에는 국제 심포지엄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회지를 영문으로 연 6회 발행하고 있으며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해외 학술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慎 齊 晟  
〈한국토양비료학회 회장〉



1996년 개최한 '유황비료 국제 심포지엄'

와 부상으로 금메달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자료를 포스터로 정리·발표한 농촌지도직에 종사하는 회원과 대학원생 회원을 대상으로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과 앞으로의 우리 분야를 이끌어 나갈 젊은 과학도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금년부터는 우리글로 4회 발행하던 학회지를 영문으로 6회 발행하여 국제 SCI규정에 맞는 학회지로 발전시켜 국제화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우리 학회는 세계 토양학회는 물론 중국, 일본 등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토양 학회 연합회의 의장국으로 1997년 토

양의 질 관리와 농업생태계 보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제주도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토양관리에 있어서는 선진국임을 대외에 밝힌 바 있다.

### 젊은 과학자 활동 적극 지원

학회에서는 '젊은 과학자' 연구회와 역대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세계화시대에 국제학회로서 위상에 걸맞게 젊은 과학자 중심으로 해외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후원하고 원로의 경륜 높은 자문을 통하여 세계토양비료학회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그 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농업인에 활용하도록 토양·비료·식물영양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평이한 해설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한 「토양비료」잡지를 연 4회 발간하여 전국의 농업인에게 무상 배포하여 연구기관의 첨단연구 결과가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실용화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계획이다.

21세기에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보전이 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학회는 인류가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작업으로 작년에는 한국작물학회, 한국육종학회와 공동으로 '식량위기-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농업의 대응반응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건의문에 담아 배포하여 각계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 식량생산 잠재력의 확충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생산비가 덜 들고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존하는 기술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㉞